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8. 3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박영철 팀장, 이재광 사무관 (Tel. 044-200-2726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황 총리 휴가기간에 지방 민생 챙긴다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부터 5일까지 가족과 함께 사흘 동안 휴가 일정에 들어갔다. 황 총리는 휴가 기간 중 지방을 둘러보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행보를 하고,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학생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.
- 먼저,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,
 - 휴가 첫날인 3일 전남 담양을 방문해 메타세콰이어길, 죽녹원, 소쇄원 등을 둘러봤으며,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창조경제 현장인 '송정전통시장'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둘러봤다. 황 총리는 시장에서 떡과 과일, 쇠고기 등을 구입해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.
 - * 송정전통시장은 1913년에 세워졌으며 100년간의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 리모델링은 최소화하였고, 창조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중기청 등 지원으로 17명의 청년 상인이 유입되어 활기를 띠고 있는 곳임.
 - 황 총리는 4일에는 충남 부여를 방문, 공남지·백제향 등의 백제문화단지를 둘러 볼 예정이다.
 - 이어 '스마트 팜'(SMART FARM) 사업의 대표적인 지역 성공사례로 친환경유기농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(ISO 9001 인증) 부여군의 머루포도농장인 '그린 농원'을 둘러보고 농산품을 구입할 예정이다.

○ 5일에는 충남 청양군 '청양 알프스마을'을 방문해서 지역축제 현장 체험을 하고 지역특산품을 구입한다.

* 청양 알프스 마을에는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세계 조롱박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,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박이 전시돼 있고 박칼국수, 박냉국수, 박아이스크림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다.

□ 황 총리는 5일 오후 세종시내 영화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원 중고 자녀들과 함께 '인천상륙작전' 영화를 관람한다. 황 총리는 지난해 7월 18일 젊은 폐친들과 서울시내에서 영화 '연평해전'을 관람한 바 있다.

□ 한편, 황 총리는 휴가기간 중인 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여,

○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의 대한민국(새만금) 유치 성공을 위해 세계 스카우트의 리더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당부할 예정이다.

○ 황 총리는 휴가 중에도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.